

## 그 마음이 고맙다고 하시며

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한 운동센터를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이날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3층건강운동실에 들리시어 넓고 환하게 잘 꾸렸다고, 천정의 높이도 맞춤하고 운동기재배치도 잘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잠시 운동실을 기쁨속에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큰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며 인민들을 위하는 동무들의 그 마음이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세상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운동센터를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훌륭히 완공하도록 세심히 마음써오시고도 오히려 일군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달아올랐다.